

화간목설소신



花丹牧说小新

1911

38

Inches
Centimetr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에그 아버지씩셔 주무시겟네

척샹엽헤서 옷입은티로 쫓고리고안져서 머리를두무름듬에다 잔쫓들어박고
썩썩々々 썩썩々々 조으느계집아희를 썰네썰네흔들면서

이이금년아 무엇이 그리조를니냐

어서 일어나 사랑에 나아가 영감마님 좀엿주어라 응

코를 들었노고 올며 정신을차리지 못하든금년이 잠고되로되 답하고 벌떡일어나서 머리를득득글그며 벽에걸닌시계를 물그람이보더니

에그
즈정
이
벌
셔
지
낫
습
니
다

령감마님씩셔 주무실겐이오

즈근아씨도 고만주무시고
 락일식전에 학교에가셔
 시험을보셔야지오

(녀학도) 니다려 그런참견하라니 어셔나가보아

금년이 정신을가다듬어 무슨싱각을하얏는지 사랑으로나오다가 거름을주춤하며 혼자말로

에그손님이오셨네

호며 혼자말로

에그손님이 오셨네

인스알고 똑々흔금년이 그뒤로 불숙나가지안이하고 살몃이 스랑총게에올나
서 류리창으로들여다보니 주인령감리참판은 주벽하야안젓고 머리싸고양복
입은손님은 모씩거 교의에걸어안져서 팔뚝갓흔 녀송연을씩々빨다가 핵니
던지면서

그리 박승지인가 무엇인가 령감씩 다시는 아모말도 업슴드닛가

(리참판) 말은 무슨 말

(양복) 허허허……

(리) 허 완 고 의 문 견 으 로 세 계 형 편 을 모 르 고 그 리 학 는 것 은 괴 이 치 안 이 하 나

글엇치만 육설은 넘오과하던걸

그리
계집아희가 학교에 다니면 다버리나

제가 너저식을 쫓치면 쫓쳤지 육설은 왜.....

(양) 응 욱설 욱설이라니 욱설은무엇이라구

(리) 말하거든 눈이나 오지

그사투의말이 학교에단기는계집이 무슨형실이잇스며 더구나 니즈식다려

(리) 말하거면 눈이나 오지

그 사람의 말이 학교에 단기

그사투의말이 학교에단기는계집이 무슨형실이잇스며 더구나 니즈식다려

학교에서 불미흔위가 있다고 쫓쳐보녀엿스니 그리 학교에단기면 다 형실이 부정하며 또 너 지식의 불미지스를 제가적실이 보앗단말인가에 그런자는 법을알녀야하지

나도오십여세에 무남독녀로그것혼아를 두엇는디 제작인도비범하고 성절도 찬물의돌갓흔터에 이런더러운욕을당하니 분막심연인걸

(양) 박승지는 근본 그런스름이니 석로히 척망할것이 업스나 욕설인즉 필경근지가잇는말이오 그홀이더분혼인물에 더구나그런말을듯고야의심을 안켓소

지고로 무슨말이든지 집안에서부터 구을너나는것이니 아모조록 언근을스실하야 변박할도리를하시오

(리) 그는그리 분명이스실하기전에야 말이나홀슈잇나 아즉발설은안이하고 동정만보는중일세

(양) 그러나 당초에령감이쌍하심넌다

(리) 웨응

(양) 아 변연이 박승지의위인을알면서 혼인을지냈드란말이오 무엇을취히셔

올치 신랑혼아만보고 박승지속에서 나온것이 무엇이변々하겟기에

역시 제아비를달마셔 손뚱이나 싹々뽀뽀며 케々먼지무든소리나하겟지

유년시대(幼年時代)에교혹을 받지못하면 제자격(資格)이 아모리썩々흔들쓸디잇나오

(리) 안이 너스외 박경서는 제아비보다 뽀뽀나 나흔걸

위인도썩々하고 저조도대단하며 지식도 완고의구습은업스나 제아비완고 혼슈단에 억미여지너다가 나이점々장성하미 세상물정을 대강짐작하고 법률학교에 입학함을 청혼즉 박승지는 콩튀듯팻튀듯 별々야단을 다치며 집안망홀지식이싱겟다고 몇철을 면목불견새지하더니 괴어히 경상도 언으학즈님께로 좁아보녀엿다네

(양) 너썩은 계집아희로 학교에단기니 그소견에 그것치안이홀리가잇나
(양) 썩々々

박승지소견에는 학교에만 단기면집안을 썩망할줄만아는것이오 하여

(리) 암으럼

(양) 다형히 신랑의 위인이 그만이냐 하다니.....

(리) 너스외는 제안히가 학교에단기는것을 잊의사지 찬성하는모양이든겔
니쌀이 쫓기여올적만히도 제아비게 여러번 잔하다가 난장까지마져다드군

(양) 그아비속에서 그조식은 춤의외로구려

고수의아들 순남군도잇지마는

(리).....

양복임은손님이 말을긋치고 도라가려일어스는바름에 눈치쌀은금년이 삼짝
놀나 어득침々흔구석으로빛켜섯다가 그손님이 나아잔뒤에 다시나와 기침을
두어번하니

(리) 그누구나

(금) 췌네올시다

(리) 웨나왔누

(금) 조근아씨씩셔 령감마님 좀들어오시라고 엇주세요

(리) 조근아씨가 입덕섯 공부를하교 안이자더냐 오 들어가지

말이긋치기전에 금년이 이리더리흔조싱각을하며 들어온다

아 우리조근아씨갓호신 밋고췌은듯하신량반이 그런몹슬욕설을 당하시나
조근아씨가 식덕으로가신지 몇철이못되여오시기에 이상이 알앗더니 누가
그런술이야 알앗셔

집허뜻코 안방노췌가 그런말을 지어넌것이지 응 붓쳐님갓고 착하신조근
아씨를 못먹겄다고할췌닭이무엇이야

이런말이나 조근아씨씩홀슈잇나 마님공론을하한다고 나만췌중하시니까
하며부즈러니 드러오지마는 부지중 한참더디엿는지라

(녀학도) 누구나 금년이나 두엇하교 인제야 들어오니

(금) 사랑에 식문발령감이오섯길너 가신뒤에 엇줍느라고 지체가되엿습니
다

령감마님게서 지금곳 들어오신다구하셔오

말이 막 뚫치즈 리츨판이 들어오며

정숙(貞淑)이 그저글을읽느나

효성스런 리츨판의 무남독녀 리정숙이 저기아바지 드리오기를 고되々々하
다가 목소리를듯고 황망이영접하니 빅발이성々하 리츨판은 정숙을볼스록귀
하야 눈먼고양이 툇의알 얼으듯한다

정숙아 왜 이씨씨지 안조고 날다러 들어오라구히느나

웨 오날공부에 모호호구절이 잇더나

시벽새지 그저안졌스니 감괴나들면 엇지하조고

(정숙) 글을읽다가 히석지못홀귀절이 잇서서 엇주엇세요

(리) 그리서 무슨귀절이

(정) 무론남녀하고 데일힘쓸일이 무엇이예요

(리) 허허 너갓치영민호아히가 그것을모르단말이나

남조는 충군이국홀스상과 효친경당홀형실이 데일이요 녀조도 이런스상과
형실이업스면 인류(人類)된본령(本領)이아니나 데일정당(貞靜)호 지조(志操)

와 온순(溫順)호례절(禮節)이 압서느니라

(정) 남조는 일처일첩(一妻一妾)을두어도 품행에방히가 안이되는데 엇지하
야 녀조는 유부녀(有夫女)가(有夫女改嫁)를 음분도주(淫奔逃走)라고합닛가

리츨판은 그날낮에 정숙이를압에안치고 박승지의녀두리를하다가 분이 엇터
게나든지 취중의말로 스불여의하면 정숙이느다른디 가합흔곳을엇어 리가식
여보닛겄다고하엿더니 정숙이는 그말을 썩고지듯고 잔속품어두엇다가 말호
것이라 리츨판이 벌서 짐작하고

허허 알기어려울것이 무엇잇느나

녀조는 항상 레절이데일목적(目的)인고로 유부녀로 다른남조와 친압하면
레절이괴손(壞損)되는것이니라

(정) 그러면 남조나녀조나 이런형실이 업고보면 금슈(禽獸)나 달을것이 업
습니다그려

(리).....

예구 앓가 아버지하신말심은 씨에사모치게 야속히서 못살겄서요

박승지는 아죽 기명심이 부족하야 저를 쫓쳐스나 박경서는 저를 쫓친 것이
안이요 또 청상과부가 안인바에 기가란 말슴이 엇진일이 예오
너즈의 레절은 고스하고 금슈의 형실을 하라고 하심닛가
리춤관이 그 말을 듯고 입이 썩 벌어져 정숙의 등을 툭툭 치며
허허허 너가 취중에 실언을 하스다

설마하니 너를 기가 식여 보닐리가 있느냐
허허허

정숙이는 자괴부친의 취담을 품어 두엇다가 무망중 말흔것인디 다시 생각흔즉
저축되는데가 있느니라 한업시 솟구하야 고기를 푹숙이고 안젖는디 멀니
가는것은 밤소리라 정숙의 하느말이 살갓치 숨잔건너 안방아르목쳤즈리에
만단궁리를 하느라고 잠이 들지 못하야 이리동곳저리동곳하느 숨심이 넘으락
말락하고 얼골은 새파루죽죽하고 두눈에 살기가 잔뜩 니발니인부인의 귀에 다
던화듯듯하였느니라 휘돌아누어 귀를미다지름에두고 눈을삼작삼작하며 듯
더니

조런 조리마목을 딜년보아

제사위어린년이 주저넘게 정절이 다무엇이야

오오 너가 청상과부로 제아비후취로왔스니사

조년이 앙큼하게 일상 나를 낫비보앗던게지

너가 기갓거니 듯갓거니 제아비계집이오 제어미별은 되겟지 건너산썩짓기
로 빗겨두고 흉을보아

세상에 요돌요돌하고 썩썩흔년도만치 학교에단기다가 식집에서썩기여온
년이 정절이잇스면 몇푼어치가잇슬나구

설스제가 기가하야가기 실여도 말을그러케하느법이업서

요년 너숨시에.....

에그새문밖오라버니는 왔다면서 왜 나도안이고갓누

개화니 무엇이니흐스름은 동심도몰나보나

왜 나를이놈의집으로 보니듯코는 전실즈식에게 이욕을당하게하누

이런싱각저런싱각하면 치가 부루루떨니네

한참이리소설을하다가
이이 섬월이저니

안방위스전에서 요리조리동긋거리며 상전마님의 뽕뽕거리는소리를듯고 말
춤견을춤하려는 간나위갓흔섬월이 부르는소리를듯더니 무슨영광이나 난듯
하여 호도독일이안지며

웨 저기는요

마님은 이썩썩 좀이못드셨습닛사

(부) 화만흔년이 좀이나 쉽게오겟지

좀이나 들엇드면 그심스틀니고 아니썩은소리를 듯지안녕슬겔

(섬) 월네도 좀이 번노헛세요

(부) 그러면 건은방에서하는소리 너도들엇겟구나

(섬) 듯고말구요 그썩지말을 드르시고셔요

그런말은 예스을시다 그속을 다드르시면 귀가막히십니다

데일금년이란년이 더웁니다 고년은아마여호가되다못하여 스름이된게예요

고년이마님말숨을하면 존되나하는줄 아십닛사

월네가 그전서방 니학습이를예버리고 저근돌이 어덧슬씩만히도 월네다

러기만도못흔년이라고 고년의노주가 숙덕 공론를 하엿스니

마님께향하는 무엇이라고 하얏겟습닛사

마님도 귀가를오셨는디 저근아씨말이 귀가하야가는스름은 금슈만도못하

하니 분명이 마님 흥보는것이 안이오닛가

마님이 아모리 귀가안이라 귀가보다더흔것을 오셨드리도 말을 그리함보

로하는법이 엇의잇습닛사 금년이는 월네와말도줄안이웁니다

에그썩도하저 자근아씨신지누구신지 심썩을 그디경으로 가지고셔야 식집

살이를 엇져니 잘히보아

(부) 나도 그런줄이야 모르니

금년이란년은 참말여호가되다못하야 스름이 된것이더라 눈치는엇지그리고

년이 졸쳐우는지

에그 썩저죽일년

(섬) 위선 고년만업셔도 현네는 먹는것이 살로가겠세요

(부) 고사진년이야 업서기 무엇.....

(섬) 저근아씨가 그러도 박승지덕을보라고 잇는모양이에요

암만히도안될걸 박승지영감갓흔완고덩어리가 학교단기는며느리를 다시아
른체홀리가잇슴닛가 더구나 그런말싸지 들어갓는데

현네도 혼인셔 쌀어가서 보았지오만은 참그런데는 처음보았습니다

집안은 비흔변도 들지안이헛는지 지저분하기 쇠두엄알치갓고 집안이헛비
위셔발막디 니져어야 걸니일것이업는디 그러도 박승지영감은 몬지가계
々무든너가레관을늘너쓰고 추포도포에 실씨로허리를잔씩동혀미고척상압
에가 잔씩쌀어안져셔 밤낮공조왈딩조왈 로론소론하며 집안스름은 굴머죽
는지얼어죽는지 도모지몰은는것이야오 현네가흔번은 집안을좀쓸어너더
니 그렇감이보고 현네를호령호령하며 기화군의집하인이니싸 위싱하노라
고 몬지를피우며 쓸에질한다고 야단을치시니 그런양반은 보든바처음이에
요

(부) 쌀쌀쌀

(섬) 저근아씨가 식덕에가신지 혼달만에 학교에잔다고흔죽 박승지령감의
놀나고 망측히녀이느모양은 참흔조보기 앓갑든걸이요

그런중에 더구나 현네이모 의주집이 그셔그말을 들여보닌지오 히히히

(부) 쌀쌀

(섬) 저근아씨졸업이 슈히된다지오

(부) 누가아니 졸업만하교나보아라 그셔는 가장 지식이 데일인데하교 더구
나 우리를발삿에 씨인셔만큼도 못알터이니

(섬) 그설을엇덧케보나

(부).....

노주량인이 정숙노주공론을 밤식도록하고 히가낫이되도록조더라

안방부인은 리츨판의후취부인인디 식문밖닝동스는 셔참셔의누의로 청년에
과부가되여 십여년을 슈절하며 눈물로세월을보닌더니 리가법이소롱후로
셔참셔가 그누의의경상을 불상히녀여 리츨판의후취로보닌니 그누의를리가

식여보이는것도 구일습관을통행하는 서참서가안이면어렵고 과부를후취로성
혼하는것도 사상이기명훈리참관이안이면 못할일이라 서씨부인이 부덕(婦德)만
있을것갓흐면 금슬이찰씩근원이될것이나 서씨부인의 승질(性質)은 엇지그리
안치고달아지며 험악하고음흉한지나보다나은사람은쫓아가며 음회를붓치고
무당불너푸닥거리하기 관슈청하여 경러기 절에가서 불공하기 전후못된일은
흔아찌지안코 다하는터이라 리참관은 사회상에도명예가잇고 지식이든지학
문이섬부흔스름으로 그가속의 이러함을알고 여러번척망도하고 금지도하나
서씨부인이 곳치기는고스하고 리참관만쓸쓸이 괴이며 리참관의전실소성정
숙이를원슈갓치미워하니 정숙이는 리참관의 전실부인김씨의 소성이라 인물
로말하면(장강(서시)의석터를범하고 부덕으로말하면(티임(티스)의숙덕을효
측하는 너즈인덕 나히십세에즈모를이별하고 서씨부인이 게모로들어오미섬
김을 소성즈모갓치하나 원악 편협하고악독한 서씨부인이 것으로는 몰을너가
는듯하나 속은싼관이라 이러할수록 정숙이는 더욱효성을극진이하며 리참관
도 이러흔눈치를취이고 서씨부인과 정분이잇기는고스하고 나무광이 등맞천

모양뚝뚝아더라

서씨부인의 정숙이를미워하는것이 여러가지니 첫째는 정숙의 지덕가 지과
보다나흠이요 둘째는 정숙의승질이 정렬하여 지과의심정과 관이히달음이요
셋째는 지과의지은과실은 지과가물으고 그남편이 지과박덕하는것을혹시정
숙의참소로 그러한가흠이러라

정숙이십일세에 녀학교에입학을하여 신학문을공부하니 지조가특이하야 학
교에들기전에도 여간학문은 그부친에게비화 대강집착하더니 학교에입학한
후는 일취월장하여 시험마다우등은 정숙이아니면 할스름이업는지라 정숙이
스상에도 지과가 녀즈는되엿슬지라도 을지문덕 합소문의 스업하기를 지부하
더라

년과가점점장성하여 십륙세가되미 숙성하기출중하고로 리참관이 정숙의흔쳐
를 구하는덕 량반을보는것도안이요 형제를보는것이안이요 가품도보는것이
안이요 일단신랑흔아만보고 동존락동스는 박승지아들과성례하니 박승지는
찰완고성원남으로 유명흔스름이라 비록서울살기는하나 머리싸고 학교에단기

는것만보아도 붓치로치면을하고 바로보지도안이하니 그만하면 그완고는알것
이나 그러나 것으로는 완고성원님의 비루한구습을 죽기를한고 쫓쳐가도속
으로는커름하기가 먹장같이분듯하야 공조화상을박여 학문가에 팔어먹기정삼
품첩지 공으로엇어 향민에게 압제로팔어먹기 별별씩무든협잡은 살금살금일
등하는인물이라 리참관이 그위인을기탄하나 그아들박경서는 박승지와판관
인고로 혼인을하였더니 박승지가 처음은 정숙의학교에다감을 몰났다가 정
숙이가 식집간지 일삭후에 학교에가기를 청하니 박승지가 펄펄뛰며 녀조가
학교에단기는것이 경서에도업고 예전글에도업는디 그게 무슨말이니 우리박
가가망하려고 너갓흔며느리를엇덧다하고 그길로친정으로 쫓쳐보냈더니 그
후에 서씨부인과섬월이가 모계를삼여 섬월의이모의 주집을부동하야 박승지
집에다 말을들여보되 정숙이가 학교에단길씩에 불미흔형실이잇다하니 박
승지는썩고지듯고 학교에단기는계집이 그런형실이 업겟느냐고 아조출거흔
지라 박경서는 정숙의학교에단기는것을 극히 찬성하던터이라 이런풍설을밋
지안코 조그부친에게 루차간하고 조그도법률학교에 슈업을할여다가 돌아

그부친의 야단을맞날뿐아니라 조식을 서울두었다가는 스름도버리고 집안을
망하겟다하야 경상도 완고산림으로유명흔 소학조에게로 칙상조를 질머지여
쫓쳐보되니 박경서의나종일은 참망창홀디경이요 박승지의 완루한악습은대
강이러흔지라 리참관은 박경서를고념하야 조그가다려다가 공부나식히조하
나 조그임의로홀슈도업서 뒤쫓만보는중이러라

이후로 서씨부인과섬월이는 밤낮경영이 정숙의노주를 업시홀성각이러라
리참관부녀의 시운이불길하고 하늘이서씨부인에게 조각석을 빌니시노라고
리참관은 천만뜻밖에 슈구과의합회를입어 평리원에 피슈가되얏다가 제주도
로찬덕하느명이나리니 그석법관도역시슈구과의일분자라 리참관이 류형선
고박든동시에 그쳐자와 리별도홀씩가업시 물이못나게 독촉을하야 불뉴시각
하고 그길로 바로남대문밖그로 나가서 사처를정하고 형장을 차리는데 정
숙이는 그부친이 취슈된이후로 먹도안이하고 자도안이하고 울며불며 지니
더니 이런급보를듯고 더구나 황황망조하야 그부친사처로 나와서 누가잇고
업는것을 가리지도 안이하고 드리다르며

아버지

격오한마디만하고 그부친무릅에 폭업드러져서 다시는아모말을 못하느디 리
참판도 무남독녀로한아를 잠시만 못보와도 견디지못하다가 불행히 슈천리
타향으로 차축을당하니 돌아올귀한이 업는지라 심회가 자연쳐창하야하든츠
에 이모양을보고 그쌀의머리를 어루만지며

정숙아우지말아라 네아비가 이번가면 아조가나나 조식된 네정리는 저러
할리라만은 슈천리बाट그로 덕거하는 네아비를 위로한마디 홀싱각은 안이
하고 도로혀 네아비심사를 저리 도와주니 네아비구곡간장이 촌촌이 설어
지는구나 정숙아 우지말아라

아모도록 몸성히 잘있고 공부나 열심으로하야 천리히도에 외로이가는네
아비마음을 위로하야라

하면서 좀체로나오지안든 눈물이 글성글성하야 안젖느디 정숙이는 한참을
늦겨올다가

에그하느남마시지 참아 이런일도하셔요 아버지께서 그홍악호 히도중으

로 귀향을 가시면 환차하실 기한은막연하온디 에그동안에 뵈옵고섭어
엇지하랍시오 제몸이 사나히나 되얏다면 아버지를 뵈시고갓치가서 귀중
의 잠적하신회포나 위로하야 드릴것을 불행이 계집아히가되야 그리도못
하오니 아버지께서 한번가신뒤에는 저흔조 엇더케 지느뇨

하며 훌훌을면서 그부친을 찾아 늦치못하느디 그무치하고 인정업는 수금들
은히가느져잔다고 성화갓치 최축을하야 그시로 압축을하니 리참판은 한거
름에 두번식이나 돌아보고 정숙이는 우뚝호이셔조 그부친의 가는것을 정신
이업시 바라보다가 산중중슈철첩하야 사람의 그림자는 서산에지느회와갓치
잔데업고 들니느니 석양에 쇠소리뿐이라 눈물이 압흘가리여 오도가도못하
고 못박은듯이 그자리에 서조 슬허올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서씨부인은 그
남편이 원악도로 덩배가는것도 들쳐오 그남편이 업는름을타서 속에가득하
게 품었든 궁리를 발견할일이 불행중다형이라십던지 정숙이 그리하는것을
오혀려 과도호모양으로 비앙거리니 더구나 마음도 붓칠곳이 업더라 금년이
도 덩다라 홀작홀작올다가 밧그로나가더니 두벌싸귀에 숨을잔뜩두고 눈은두

룩두룩흐스름흐아히 갈지저거름으로 기우뚱기우뚱 리춤관짐을향하고오다가
금년을보고 무슨경스나난듯이 입이색벌어지며 왈각달녀들어금년의순목을
을크러지게 잔뜩잡고

요년아 네가인제도

니가 너흔번분잡기에 젖먹든힘이 다들었다

금년이는부지불각에 이런소조를당하야 외마디소리를지르며

에그머니

새문밖셔방님 웨이리십니까

(식)문밖셔방님) 요발촉흔년아 네가 암만그리면 정렬부인직첩이 네게차레

오줄아느냐

이번은 막무가늌히다

지혜만코약은금년이 싱긋웃으며

어서 노셔요 누가봅니다

(식) 보기는 누가보아 보면엇더하냐

(금) 에그으 누가보면 니셀은무엇이며 또셔방님모양은 무엇이됨남가

(식) 이이 그우수운말 말이라 모양모양이 다 무엇이냐 나는모양 안보는스름일다

(금) 다시는안이그리고 하라는되로다할게요

(식) 진정

(금) 암으렴

(식) 그리면오늘밤에 오라

(금)

(식) 만일이변도 또속이면 엇의보즈

(금)

이 열업고쥬착업는자는 금년의약먹이는소리를 썩고지듯고 엇더케쫓든지손
목을 탁노하버리니 금년이는 뒤도안이돌아보고 안으로들어가셔 그되스식을
니지안이하고 밤되기만고되고되하는되 히가더되잔다고 눈살이뒤집혀 좌불
안석하는스름은 셔씨부인의 족하셔병신이라 처음부터금년이를 욕심니여별

별계책을 다쓰나 금년의 마음들니기는 고스하고 육도 여러 번 본터이러니 리춤
관도업고 괴단할것이 업는초 금년을보고 육심이불갓치나서 인스레면을돌아
볼시업시 겁잔을하려하더니 천만의외에금년이슈축함을보고 색고지들엇든지
잔신이밤들기를기다려 인왕산밋리춤관집을바라보고 무엇이나 초저먹을것이
잇는듯이 불이나케와서보니 압뒤문을첩첩이닷고 아모괴책이업는지라 혼조말
로

허 요런년보았슬가

변연이 닢가을줄알면서 압뒤문을 잔속다더결었나 요런년

이변도 또속앗군

오스 집안스름이 의심할가하야 그런것이로구

하면서이리로가셔도 기웃 더리로가셔도 기웃하다가 무슨냥모괴책이나 생각
하듯기

을치 더리로들어가지

말을속곳치고 안뒤담을괴가막히게결쳐붓들고넘어들어갈제 담밋에서조든바

죽기가 제머리위에서 인괴책이남을듯고 고기를번쩍들고 두리번々々々하다
가스름이넘어오는것을보고 을으룩々々々 쟁々지々며 뛰여올나 담에결치인
손목을턱श्यक고늘어지니 골몰히 담넘이하는 서병신이 손목을물녀알푸기는
지당할수업스나 집안스름이불싸 동리스름이알싸 그도념려요 또리춤관집뒤
는 골목길인고로 밤이면 순금들이 번갈어가며 힘순하는터인뒤 만일순금에
게들니기만하면 청바지저고리는 세여둔당상이라 니싸리를잔속응물고월져
뛰여들어가니 바둑이가쫓겨가며짓는지라 손짓을하며

월이々々々々

바둑이가실시업시짓다가 병신의음성을듯더니 쌀이를설렁々々치더라 눈쌀이
불거납되는병신이 알퐁것도참고 안뒤구석에 금년이조는방을 더드며초저가
서 방문을속々두다리며 감안이

금년아々々々 나왔다

문열어라々々々々 금년아々々々

나왔다 응 금년아々々々

금년아々々々

요년아 고만 문열이라 농도분슈가있지 금년아々々々

금년이불으기를 몇번몇천번을호였는지 입에침이 밧작말나서 목이싹디경
이라 당초에경영은 틈을타서들어오면 금년이가마조나와영접할줄만 색밋엇
더니 영접은고스하고 그리목이밧허불너도 괴척이업고 스면에서 귀만경々젓
는지라 일변락심도되고 일변골썩지가나서 마음되로할것갓흐면 문을젓바수고
뛰어들어가고섬으나 그도할슈업서 공연이 니만북々갈며 돌오나오려하더니
별안간에 주루룩소리가나며 난딛업는 똥물한통이들어와 머리로쫓추 밧등싸
지 나리씨우니 무심중에 당흔병신이 엇뵈게 놀났던지 소리를질으고 나가쟈
바지니 더러운악취가 코를찌르더라 바둑이가마루밧에서즈다가 외마디 소리
에놀나경々지즈며 금년이가 안마당에서 도적이들엇다 외오니 집안하인들이
썰결에 도적외노소리를듯고 뛰어들어나서 몽둥이 방망이를 닥치느되로 집
어들고 안으로들어오니 금년이가 마조나오며

여보 최선달 최선달은 급히안뒤구석방근쳐로 가서보시고 핏셔방은 부엌

뒤로가서 보시오

최선달이 몽둥이를들고 안뒤로 돌아들어가니 구린늬가 먼저인스를호는지라
코를들어막으며

이런 제어미를붓를놈의도적놈 도적을다못하야 똥도적놈이 다잇나

이제 서병신은 무심중에놀나기를과히하야 잣바졌다가 정신을 잔신이출인쥬
리춤관집이 불쑥뒤집혀 범강장달이가흔놈들이 방장도적을잡으러들어오는모
양이라 그씨는 압흔싱각도업고 더러운싱각도업고 심중이황々하야 두주먹을
불쑥쥐고 담을넘어달아나더니 최선달이보고 소리를질으며

여보게 저근돌이 도적놈이 여괴잇네

호면서 몽둥이로 보기쫓케두어변을안기이니 병신이는 감히압흐다소리도못
하고 담을훌쳐뛰여 달어나는되 최선달은 곳하여 좁을싱각을안이하고 나아
가더라 병신이는 능지가되게미만맛고 쓸먹은병어리와갓치 쓸썩소리도 못호
고 황금투고에 금갑을입은되로 잔신이 산골기천을쳐져가서 위선 입과얼굴
의똥만씻고 실성호스름모양으로 빗썩々々가며 중얼々々금년을벼른다

조련 디덕에 처죽일년보아

량반의입에 언감심심이 똥을먹여

우리아즈머니가 슈츠말씀하시는데는 것을 나는 고년의 식티를앗겨 이세까지
두엇다가 그여히 육을 참혹히보았거든

또 최춘습이란놈이 나를세려 이놈너도엇의 좀보조

그놈이 분명히고년과 찢것이지

그러면 저근돌이가 들어왔슬리가 잇다구

이런궁리저런싱각을하며 식문밖으로 나가는디 금년은 허리가불어지게 굴너
가며 우스며 속마음으로

에그 똥감락이하고 가는모양이야 참불만하지 그런 더러운짓하고단기는
름은 똥을먹여야하

금년이 시침을 뚝떼이고 들어와 아모말안하느니 집안에서는 도적이들엇든
줄만알싸름이나 눈치치이기는 여호가흔안방부인이라 좀이천리만큼다라나든
지벌덕일어안져 담비덕에 담비를담아가지고 홀아비굴룩에연과나오듯 뽕뽕

먹더니 벼로집을 득열고 먹을 득득갈어 되지안은글시로 외설세썰썰까쓰더
니 착々접어버개밋에너엇다가 식전뒤틀림으로 섬얼이를주고

숙은々々

(섬) 예々々

조련년이 엇의잇셔요

정숙이도 금년에도적들었다소리지르는통에 좀이세여 눈치는대강짐작하나
비례지스인고로 구두에올녀 못지안코 몰으는데하느니 금년이싱각에안방부
인의죽하를 그렛게육을뵈엿스죽 필경무슨일이잇슬줄은 짐작하야 얼마썸게
넘이되든지 저다가별안간에 좀고디를하느니 좀이 들나말나하든정숙이 썸썸
나 금년을흔들면셔

이이 금년아々々々 웨그리너 금년아

정신 좀차려라

금년이 그제야 좀을세여일어안져셔 눈을이리비々고 저리비々더니
에그썸도 고약히라

무슨년의꿈이그리

(정) 왜 꿈을 잊었게 꾸엇길네 잠꼬대를 그리야 단스럽게하느니

(금) 꿈도참 고약하요

꿈에 도적놈이 들어와서 현네를천천동여다가 강물에다 너허요

또 그나그뿐이라구요

참아말삼할수업세요

그놈들이 또조근아씨를.....

(정) 에씨 밋천년 무엇이불길한단말이나 란몽일뿐안이라 도적놈 특인것이
넋가 그러치

(금) 란몽이면 엇지그리분명하요 꿈도허스가 안이랍니다

(정) 밋천년은 밋천년의소리만하느구나

그만두고 잠이나조거라

일건 꿈말하느금년이 저의아씨에 핀잔만맛고 다시티답을못하고돌오 쓰러져
조고 잇은날정숙과갓치 학교에를가더라

이후로정숙은 학교에서오면 방문박을나지안이고 공부만하느니 하로는 금
년이정숙을싸라 학교에갓다가오노라니 섬월이가 박게서들어오며

금년아 박게서 누가찾더라

(금) 누가

(섬) 네가 알슈잇니 웬사니아회드라

(금) 에그 고약하라 산아희가 웨나를초져

우리아버지나 안인가

(섬) 네가 너의아버지를 몰나서

(금) 어서왔답딧가

(섬) 조세히는몰나도 남티문박게서 왔다드라

(금) 나희는얼마나되여 뵈입딧가

(섬) 오십썸된듯흐티 급히너를 보조고하드라

어서나가보아라

이제 금년아비 방슈보는남티문박 정거장근처에서 노동을하느티이라 금년이

는 남딴문밖에서 금보가 들어온줄알고 급히나갔다가 들어오며 곡지흥을
느낀다

에구々々 불상히라

에구々々 나갓흔년은슬어무엇하나

에구々々 지식이라고는 나흔아썸인디 림종도 못했스니 지식이라할슈잇
나 에구々々

(정숙) 에그 밋천년도만타

나갓다들어오더니 무슨소리를듯고드러와서 더리울싸 요란시럽다 고만을
고 말이나시원이히라

금년이 목을뚫코 올라가 우름을억제하고 눈물만 비오듯흘리며 목메인소리로

에그 썸네아범이 죽었디요

(정) 그게무슨소리나 참말이란말이나

(금년) 지금 흥부가 왔세요

(정) 에그참 참혹히라

금년아 어셔나가보아라

말을뚫곳치고 눈물이 핑돌며 지화몇장을 넘어주면서

이이 금년아 이것가지고 어셔가보아라

나의아범이 죽었셔도 눈을감앗겄네

금년이는 이말을듯고 더욱 늑기며울고 밧그로 나아가는디 안방부인은 이소
리를듯고 대경소피하는모양으로

무어 금년아비가 죽었셔

참 불상하구나

죽은스름도 불상하단만은 금년의경상을 엿뎃게 본단말이나

금년아 지체말고 어셔 나가보아라

지식된도리에 어디되었나

금년이네 그말을 들은동만동 천방디방 늑은놈을싸러 길에나셔니 눈물이압
을같이여 어딘줄도 몰으고 열마썸 갓든지 두다리에 알이흥々이배여 것지를
못하고 펄쩍주저안지니

(능은놈) 이이 더리면 언으시절에 나가잔말이나 댈츠나 기들너라고가조
일식경은되여 쟁々소리가들니며 댈츠가 쫓々々와서 썩셔는디 능은놈은인심
쫓게 댈츠표를 스가지고 금년을츠에올녀노흐니 금년이 츠를타고 한츰가다
가 큰홍예문에 다々라셔

(금) 아자씨 여괴가 어디오닛가

(능) 어디야 문턱이지

(금) 에그 남딕문은 안인디요

(능) 허 그것츰 잔말도무던이흐는구 아모딕로 가든지 쌀니만갓스면 데일
이지

어언잔에 히는쌀어져 어둡침々야 먼딕스름알아보기어려울만치 되엿는디
츠가 익오고마루턱이에를 당엿는지라

(능) 여보 정거 좀히쥬구려

말이 막설어지며 장거슈가 초인종을쟁々흔들더니 츠가웃득셔는디

(능) 어시원호고 인제는 거진다왔다

이이 아가 어셔나려라

금년이 능은놈을쌀어 엽드러지며 곱드러지며 아오고기 송남속으로 들어가
니 스름의 그림자는 혼아도엽고 스면이 컴々야 지척을 분변할슈엿는디
들니는이 옷비미소리와 군호식소리라

(금) 에그여괴가 어딘가 우리아버지 계신집을어디이리온다구

(능) 압다고년 잔소리느츰

금년이는 설음에북박쳐 무셔운지도 몰으고 솔밭속 무인디경으로 점々들어
가니 솔밭속에서 두어놈이 망을보다가 능은놈이 금년이다리고 오는것을보
고 두놈이 나셔며

에츰 당션달수구를 대단히 헛네그려

(또한놈) 에구 당션달 여괴씨지 어려이다리고 왔쇼그려

금년이 무심중에 오다가 그놈들의 음성을듯고 전신이 사시나무셀니듯하며
에그 식문박셔방남 엿지여괴계십니까

여보핑셔방언제 나왔소

말이 설어지지 못하여 무지하고 우악한 늙은놈이 금년의 비단결같은 머리채를 일네에 실감듯 손에다 휘々 천々 감아 꼭 잡아치치니 금년이는 혼비백산하여 광풍의 낙엽갓치 나가설어지며

에그머니 할아버지 왜이리시오

(늙) 에 고년 감안이 잣바져거라

할아버지가 무슨제밀붓들 할아버지야

(금) 니가 무슨죄가잇습닛가

(늙) 이년아 아가리 짓찌기전에 죠동이 닳쳐라

네가 죄잇고 업는것을 니야 알비스덕이가잇느냐

나는 막걸니잔에 팔녀서 이짓을한다

(금) 에그식문밖셔방님 월네가 무슨죄가 잇길네 이리혀셔요

여보핑셔방 핑셔방은 이리힐것이 무엇이오 졸말녀주오

(식문밖) 요 말축하고 말길년아 죽어도 벌셔죽을년이 랑반의입에 똥을먹여

너갓흔년은 살녀두어 못쓰느니라

(금) 에그 하느님맙시스 에그々々

(핑) 요년아 누가듯는다

(식) 이이 즈근돌아 고년과 만슈바지하여 무엇하누 어서 요정을늬고 들어

가지

제아비죽은줄알고 셔름에 못이기에 울며불며 나오든금년이 초벌흔이 다 싸진곳에 이런변을당하니 남은흔이 마저싸져 괴식을향야 스지에 온괴가업고 점々 푸른괴운이 성기니 스즈갓흔 즈근돌이 무지하게 달녀들어 버션짜을벗겨 금년의 입이찌어지도록 틀어막고 설々우스며

허々々 죠년을 썩여오느라고 져먹든심이 다들었셔

(식) 참말이지 당션달이안이면 죠년을 잡아올슈가잇나 걱정말게 죠년이나

졸쳐치하면 막걸니잔이나 더먹임세

늙은놈은 막걸니잔이나 더먹이마는소리에 엉덩이브름이 절로나셔 금년을 질끈々々 힘을빼가며 동혀놋코

여보시오 셔방님 인제는 엇터케 하랍시오

(시) 엇더케 할것이잇나 여괴셔 죽여버리지
(조근돌) 천만의 말씀도 하십니까

예는 다른데와달나 오셔조너인고로 동쌀만 번하면 산술금들이 썩이 늘어
섯은디 만일들키기만하면 엇지하와요

(시) 글세 그러면 엇지하면 도흐나

(조) 더할것안이라 예셔 양화진이갓가오니 물에다 썰여버리면 아모녕려도
업슬듯합니다

(시) 허々々춤 네말이올라

늙은놈은 가장긴흔것을 뵈이느라고 금년이를 질방걸어 피나리보짐지듯 상
々지고 강으로나가니 석문박셔방남이란조는 상여뒤에 상쥬싸르듯 두줄먹을
불쌍쥐고 괴가막히게싸려셔 강가에 당두하니 여괴는 금년이가 흔적도업시
죽을곳이라 늙은놈이 금년을 나려두손으로 아래위를 마주잡고 정월보름
날 고기밥쥬듯 강심중으로 회전더니 불상흔 금년의흔신은 금호쥬슈를쫓츠
순식간에 잔곳이업고 석벽달은 회미흔디 원근강촌에 들우는 소리는 악々々

더라

(시) 허々々

(늙은돌) 썰々々

(조근돌) 썰々々

경기도 풍덕군영정포는 서판대로에 잇는포구라 좌우에 술막집이 즐비하여
왕늙하는 형인들이 들며나고 나며들어 스름들이 썰썰가업는디 겸하여 나루
터인고로 장스하러 단기는 삼판선과 고기낙그러 단기는 낙시거루는 모다영
정포 나루터에 미여두난터이라 영정포 중잔술막집 북노방에서 조든형인이
별안간에 소리를 벌억지르고 벌떡일어안져 입맛을 썉々다시며 어경을철놈
의썩 슈션도하군

하면서 입담비를 부시질너 골방뒤에담아 흐춤먹다가 도로쓰러져셔 코를쿨
々굴더니 또소리를 벌력갓치 지르며

금년아 이리오나라 저것이 원일이냐

하다가 제소리에놀나 잠을꽤히쳐 일어안즈며

허어 필경 무슨일이 잇는게로구

금년이가 죽었다말인가 몽스가 엇지그리 이상하구

전신에 피투성이를하고 삶에 두번이나 뵈이면서 살너달나하니 정령죽은
것이로구

만일죽었스면 엇다가 마음을 못쳐스누

제길하놈의 신슈도만치 혀을고비에 쌀조식하아둔 것이나마 진일슈가잇나
흥

말을씩긋치며 피나리보스짐을 부스럭々々싸더니 발감기를 단々히하고 날
이말기도전에 서울로 오려고 강가에 나셔본즉 창망하물빛은 하늘에 다앗고
스름의 그림자는 혼아도엮는지라 마음이 공연이 황급하야 강가에 미여둔
나시거루하아를 쉴너라고 강중으로 저어들어오더니 은々이 스름의 소리가
들니며 불빛이 반짝々々빛추더니 썩소리가나며 씬관션한척이 웃강에서 나
려오는지라 상아씨를들어 씬관션을 밀다가 상아씨똥에 무엇이 튕걸니며 씬
관션밋으로 들어가거늘

(형인) 여보 씬관쥬인 비밋으로 무엇이 들어갓스니 좀전져보오

(쌈관) 무엇이 들어 갓단말이오

하면서 비머리의 키를돌너 비를돌나이고 무엇을 두손으로 쌍々건져너여 한
출보더니

에 뒤々 재슈가 엮스니싸 별일이 다만코

식전딴름에 송장하아히 차례오니 오날무슨 일이되겟나

(형) 무엇이에요 송장 송장이라니 송장은 웬송장인가

허누가도적을 만나서 물에빠져 죽었나 살기가슬혀서 물에빠져죽었나
에 불상하일이로군

여보 다형이 노형이 그송장을 건졌스니 비에실스고가가다가 정하쌍에 무더
나주오

(쌈) 아압다 그량반 치마폭이 열두폭이나 되나보군

여보딴은 갈길이나가오

형인은 그송장을보고 가슴이 덜떡나려안즈며 눈물이 펄々쏘다지는지라 씬

관주인의 하는말도 탄홀싱각을 못하고 강을 급히건너 경성인왕산밋으로 허위々々오더라

에그 금년이가 웨안이오나 으

금년이가 웰일이야 으

함며 이를티이고 안젧는스름은 인왕산밋 리츨판의쌀 리정숙이라 금년을보느고 즉시를줄만 밋은터에 슈숨일이 되도록 소식이 돈절하니 혼조안져 칙만 보다가 밋게서 인기척만나도 금년이 오는가 바름에문만 덜씩하야도 금년인가

이이 누구냐 금년이오너

다시분죽 안이라 실흔흔 스름도갓고 상성흔 스름도갓치 안져서 스름이나보느여 보조흔들 그전잇든 하인들은 안스방부인 등쌀에 모다 켜도망을하교 다만섬월의 랑쥬뿐이라 집을 물은다고 이리핑게 저리총탁하니 정숙이는속만 부집죄듯하고 안젧는티 안스방에서는 씨리々々 모혀안져 입을빚죽이며코우숨을흔다

(섬) 암만 눈이빠지게 기둘너보지 금년이가오나

(부인) 이이 그만하면 고년이 룡궁에들어가서 조식이라도 벌셔 나앗겔다

쌀々

(섬) 인제야 것칠것이 잇슴닛가 히々々

(부) 고년을두고야 무슨일을 히볼슈가잇셔야지

고년이 룡궁에 들어가셔도 말전쥬질을흔자

인제는 요년정숙아.....

한참이모양으로 숙덕이는중에 대문간에서 누가와 부른다

하님々々

(섬) 누군가

(부) 어서나가보아라 식문밋하인이 들어왔나보구나

(섬) 목소리를 들어도 식문밋하인은 안이을시다

함면서 여호갓흔 상과다이에 삶의우숨을하교 나가더니 썸을 썰々흔니고 썸어들어오며

에그 마님々々

금년아비가 슬어왔습니다

(부) 에씨년 그게무슨 산미들닌소리냐

죽은스름이 와서

(섬) 에그마님두 현네가 거진말 하느줄 아시네

(부) 참말이야

(섬) 그럼은요

(부) 그러면 금년이 다리고왔디

(섬) 금년이가 왔스면 들어오지 안겐습닛가

(부) 그러면 좀무러보아라

금년을 웨 불너닛가나 아

부인과 섬월이 주고받는 소리로 안팎 달은 슈작을 하느디 어진혼이 다싸 지기는 금년아비 방순보라 풍덕영정포에서 허둥지둥 니참판집으로와셔 부르면 첫지 금년이가 마조니달을줄로 색 밋엇더니 웬곡절을 몰으고 눈이

휘둥그리져서 다시부르려 하든처에 섬월이 향똥々々나오며 하느말이

여보시오 방선달 금년이는 왜안이다리고왔소

또 약은 무슨약을 지시고 스오일동안에 저러케 완인이 되었소

(방) 무엇이오 금년이를 다리고오다니

(섬) 에그저소리들여보게

그저게 방선달이 죽었다고 남문밖게서 전인이 들어와 금년을 다려가고

성시침을 썩셔인단말이오

(방) 그것이 무슨말이오

죽기는 엇던 경을칠놈이 죽어

나는 이달초싱에 보형사를받고 기성까지갓다가 오늘이야 들어오느디

(섬) 에그 고약히라 그러면 금년이가 어디를갓서

방가는 섬월의 말을듯고 졸연이 눈이산뵈게 베여지며 열이벌적나서 밍세를
니붓치며

이런 제미를붓고 경을칠일이잇나

아마상전이 심히구려셔 물에바쳐 죽은게로구

누구다려 무어엇지고엇지히

나다려 죽엇다고

그러면 누가속을줄아오

금년을 어셔불너 니와야홀겔

안사람부인은 섬월이를 니여보닐후에 귀를기우리고 방가의 슈작을듯다가 념
치쫓케 니딕고 악을 버력々々 쓴다

이놈아 금년아비야 무어엇지히 네가 무엇이라히노

이놈네가 죽엇다 평게하고 금년이를 썩들니고와셔 무슨잔말이나 그러면
누가속을줄아나

그리고 능히 무슨할사

이놈닐름 금년이 츠저밧쳐라 네가 츠저밧치지 안이하여 보아라

이놈네가 금년이를 썩니지 안이히스면 네가 딕에와셔 금년이를 안이부
르고 왜 하님을먼져 불넛느냐

그것만보아도 환이 알 노릇시지

저런죽이고 또죽일놈이 어딴나

딕령감이 게시드면 저런놈은 당장 건오금을 썩혀노홀겔

이이 섬월아 즈근들이다려 술금 줌 불너오라고 히라

이놈네가 경무청에 가서도 저싸위 버르장을 할가 이놈々々

훈참이리 악을쓰는중에 정숙이는 흑석모스 치마에 구쓰를신고 반양제머리
에 훈손에 우산을들고 훈손에 척보를들고 거름을 총々히 거러오더니 방가
々 압에와셔 허리를 썩벼하며

즈근아씨 문안들입니다

무심하고 오든 정숙이 방가를보고 썩작놀나 아모말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
가니 방가보고 놀나기는 정령이 죽었다든 방가々 술어왔슨죽 금년의일은
못지안이하야도 알지라 시름업시 안젓는딕 안사람부인은 정숙이 오는것을보
고 더군다나 괴가나셔 담비스딕로 방바닥을 합브로 두다리며 죽일놈이니 살
닐놈이니 하는지라 정숙이는 우뚝한이 안져싱각을 하나 금년아비는 그런불

량한 짓할 사람은 안이요 금년에도 주인을 비반하고 도망할 위인은 안인디
엇지된 곡절을몰나 심병이 될디경이라

(섬) 에그 그러면 그놈이 유인하야 잔게지 아마

(정) 무엇이야 그놈이 누구란말이나

(섬) 글세 현네도 그놈이 누군지는 모릅니 다만은 거번에 금년이 가 었던놈
과 무엇이라고 은밀히 슈작을 놓다가 현네를보고 삼썩놀나 얼골이 빨리
지며 드러오기에 현네는 예스로알고 덤쳐두엇지오

(정) 예기년 금년이 가 그런형실은 안이흐단다

부인은 이말을듯더니 얼골이 선지방구리가 되여 포달스런 소리로 정숙을 부
르며

이이박집아 금년을를 만고렐녀로만 알앗디

량반의 계집아희라도 거리로 쓰질느면 오금이 썰러인데 금년이는 세상에
업는 인물이나

별々 우손소리도 다만타

고년이 그런형실이 업스면 그리 어디로갓단말이나

네가 고년을 그리 뒤덥다가 죠흔소리 듯드라

량반이 심히구려 물에빠져 죽엇다구

학치를 필놈갓흐니 제가 정령이 썩니고 었지면 그리 썩々하게 되순라를
줍나

제가 었뎡케 하든지 금년을 츠져밧쳐야 흘겔

금년을 못츠지면 그디신 몸갑이라도 히밧쳐야지

(섬) 에그 좀 츠으십시오 금년은 정령 그놈이 썩여간 게을시다

금년아비도 일썔 쯔식을 보러왔다가 업스닛가 화스김에 그런것이지오 용
서하실밧게 잇습닛가

저도싱각이 잇스면 츠져밧칠 터이지오

정숙이는 부인노주의말이 곳친후에 방가를불너 쯔세흐스실을 무르니 쯔식
일코 되순라줍힌 방가는 입맛을 썩々다시며

소인이 쯔근아씨 혼분만밧고 금년을 덕에갓다 두엇더니 오늘날 이런일이

잇슬줄 생각못하였습니 다

소인이 이달 초상에 보형상을 밧고 송도까지 갔다가 일전에 풍덕영정포서
즈음는디 꿈에 금년이가 두번이나 웬몸에 피를 흘니고 현몽하며 슬녀달나
고 하는고로 즈연심신이 황홀하여 그길로 바로써나 덕에와서 본즉 과연
런일이 잇습니 다 그러

정숙이는 정신업시 방가의 말만듯다가 눈물을 이리저리 써스며 방가를 위
로하는말이

에그 불상도호지 금년이갓치 쌀々스런년이 그런 화변을당호면 슬냐고 할
리가잇나

금년이는 나를 비반호고 갈스름이 안이야
에그 금년이가 어디가서잇나

또 금년이 업셔진것을 설마 즈네게야 의심호겟나

설스 금년을 썬돌날 생각이 잇드리도 즈네즈식 즈네가 다려가는것을 그
리 은밀암밀이 흘서닭이잇나

또 나와갓치 줄어난터에 몸값이 다무엇인가

즈네정경이 오히려 불상호게 되었는디

아죽물너가서 잇스면 덕령감이나 환락호시거든 즈연알도리가 잇겟지

이썬 방가는 무엇이라고 할말도업셔 하직호고 가는지라 부인은 섬일을 썬
々썰으며

에그 꿈썬은 영절스럽다 엇지면 고년이 죽어서도 고러냐

(섬)마님이 악쓰시는 바름에 설겨소리도 못호고

멀숙히 썬기여 가는모양이 우습습니다

초후로집안에 돌님장이는 정숙이라 학교에 갔다오면 두문불출호고 공부만
하더니 졸업시험을 다치르후는 학교에도 가지안이호는디 부인과 섬일은 마
음티로 마조만 안지면 공논만 호더니 호로는 즈근돌이가 들어오며 식문박
서방님이 왔다호는지라

(부) 식문박서방님이 오섯서
들어오시라고 히라

말이 막긋치며 서병신이 들어와 부인을보고 인스흔후 부인을 찌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덕석을흔다

참 나 아니면 고년을 죽였겠습닛가

똥먹은싱각을흔면 지금싸지 분히요

(부) 암 이를말이나 고년은 업시헛지만은

또 그일은

(병) 그일은 초々 말심헛지오

일변말을흔며 좁기에서 무엇을 닐여은근이 부인을쥬며

즈세히 세여보십시요

부인이 열는밧아 세여보더니 입이 썩벌어져서 서병신의등을 뚝々치면서

에그 참 괴룩도헛지 닐죽하야

나는 너안이면 슈죽을 동헌듯헛다

그러나 그 스름은 누구며 이후에 말이나 안날싸

(병) 참 아지머나도 닐가 범연이 헛였겠습닛가

말은 무슨말이 나요 그 스름은 싱각이 업겠습닛가

(부) 그러나 그년은 그디경을 당헛면 집하듯코 살냐고 안이힐터인디 나 좋
에 돈을 돌오달나면 엇지헛디

(병) 썰々々 이왕저를 쥬어논후는 죽든지 살든지 누가 알 석닭이 잇습닛
가 솔면 제가쫓코 죽어도 제가당힐터이지오

그러나 졸업방이나 나야 성스가 되겠습니다

(부) 암 그러치

(병) 여잔인물은 안이닛가 좀체로헛여는 안될겅이지오

(부) 썰々々

(섬) 썩네도 그덕에 썰어가 불터이지오만은 절기가 기절이 되겅지

(부) 썰々々

(병) 썰々々

하참 이죽々々 못된공론을 헛든서병신이 가려고 일어스다가 다시 부락헛는
말이

큰아버지 오시거든 나가 왔드란 말심 말으십시오

(부) 웨 그리니

(병) 큰아버지는 공연이 나를 흥흥저식이니 망흥저식이니 하시며 씹씹도 못하게 하신답니다

더군다나 아저머니 뵈고왔다면 도화지사겟습닛가

(부) 아 웨 그런다디냐

돌오혀 너다려 집안을 망혼다고히

리츨판과는 질문하여 정숙이 위하기를 제집친주보다 더하니 그리 정숙이는 친동과보다 더 하단말이나 참 야속하여 못슬겟더라

설々々々

병신은가고 부인은 흥에떠여 곤디짓을하며 단기는모양을 압전하고 단정호정숙이 그위인을 심중으로 부축히 알지언정 녀석은 안이하고 지너더니 하로는 녀저스범학교 데일회 졸업방이 낫는디 최우등에 리정숙이라 부인이 펄々뛰며 도화혼다

에그 신통하고 괴특한지 졸업을히도 우등생이지 우리동양비판 이리로 처음일결

령감이 세섯드면 오작도화 하실나구

에그 절흥히라 령감이 제쥬셔 언제나 오시노

그러나 졸업방이 낫스니 졸업례식도 슈히 될터이지

(선) 저근아씨가 졸업을 하섯스닛가 벼슬도 하신티요

(부) 암 벼슬별이겟니

에그 신통하수룩 신통하지

리정숙 졸업방이 각신문에도 게재가 되엿는지 하로 식전에 신문이 경성오부저니에 눈발갓치 분전되니 우등생 리정숙슴즈에 눈살이번쩍 떼이기는 신문발서참서의죽하셔병신이라 저연 몇칠이 되엿더니 오후 녀점가령은 되어 저근돌이가 봉투에 봉헌편지를 들고 들어오며

저근아씨 학교에서 청첩이 왔습니다

(정) 웨 청혼다디